

이츠마이라이프: '정순함박' 잠실본점 고정순 사장님 이야기

2026. 10. 29.



함박스테이크 가게 '정순함박' 잠실본점 고정순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정성스레 구워낸 함박스테이크처럼 묵직한 진심과 사장님의 유쾌한 유머가 인상적이었는데요. 인터뷰 중에는 손님 한 분 한 분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전달하려는 마음이 줄곧 느껴졌습니다. 정순함박 고정순 사장님의 이야기, 들어볼까요?

'이츠마이라이프'는 쿠팡이츠와 함께 성장하는 사장님의 이야기를 담은 시리즈로, [쿠팡이츠 사장님 캠퍼스](#)에서 연재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잠실에서 18년째 '정순함박'을 운영하고 있는 75세 고정순입니다. 쿠팡이츠도 오픈 초기부터 시작해 벌써 5년 차 베테랑 파트너가 되었네요.

제 본명이 고정순이에요. 예전 이름이라 조금 촌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제 이름을 걸고 정성을 다해 만들겠다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시나요?

아침 10시쯤 출근해서 가장 먼저 직원들 출근 여부를 챙겨요. 그리고 곧바로 우리 매장 시그니처인 함박들을 굽기 시작하죠. 노릇 노릇 구워지는 함박과 바삭한 튀김 함박을 준비하다 보면 금세 매장이 온기로 가득 찹니다.



함박스테이크 전문점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IMF 때 남편이 퇴직하면서 저도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에 뛰어들었어요. 그전에는 주부였거든요. 그러다 방배동에서 아들이랑 카페와 수제버거 집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한국 사람은 역시 '밥'을 먹어야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밥과 가장 잘 어울리는 메뉴가 뭘까 고민하다가 함박스테이크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예상은 틀리지 않았어요.



어르신들께는 배달 앱이나 POS기 조작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주문이 들어오면 포스기에서 알아서 착착 출력되니까. 그냥 누르기만 하면 되거든요. 저도 쉽게 할 수 있을 정도니까요. 포장이나 세심한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많이 도와주고, 저는 함박을 맛있게 굽는 데 집중합니다. 요새는 더워서 그런지 사람들이 배달 주문을 많이 하니까 하루 배달 매출만 100만 원 가까이 나올 정도로 반응이 뜨거워요. 그래서 다들 쿠팡이츠를 하나 봐요. (웃음)



그럼 현장에서 직접 장사하시면서 느낀 쿠팡이츠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가요?

이건 바로 말할 수 있는데 ‘빠른 배차와 배달’인 것 같아요. 우리 매장에서 제일 잘 나가는게 튀김함박인데 온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음식을 만들어 두고 너무 오래 기다리면 맛이 떨어지기 마련이잖아요. 쿠팡이츠는 조리 완료 시점에 맞춰 배달 파트너가 빠르게 와 주시니까 손님들께 따뜻하고 맛있는 상태 그대로 전해드릴 수 있어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요즘처럼 더운 날 고생 많으신 배달 파트너분들한테도 늘 감사한 마음이지요.

기억에 남는 손님이나 보람찼던 에피소드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요, 기억에 남는 분들이 있죠. 부산에서 멀리 찾아와 주신 분도 계시고, 심지어 해외에서도 찾아오신 분들이 계셨어요. 운 좋게 저희 매장을 방송매체에서 여럿 촬영하러 오셨는데 콘텐츠를 직접 보시고 일부러 찾아왔다고 말씀해 주셨을 때 정말 뿌듯하고 고맙습니다. 지금 촬영하는 이 인터뷰를 보고도 많은 분들이 저희 매장을 찾아와 주시면 좋겠네요.



요즘은 매장 운영 외에 요즘 새롭게 재미를 붙이신 일이 있으시다구요.

맞아요, 요즘 스마트폰 앱으로 영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어도 잘 떠오르지 않고 어렵기도 했는데, 하나씩 다시 배워가는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열심히 익혀서 나중에 정순함박을 해외로도 진출시키고도 싶고요. 또 기회가 된다면 멋진 풍경화를 그리는데 그림 공부에도 꼭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쿠팡이츠 에디터의 한마디

75세라는 연세가 무색할 만큼 넘치는 열정으로 매일을 가꾸어 가시는 사장님의 모습이 정말 깊은 울림을 주었는데요. 이름을 걸고 지켜온 정성과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진취적인 마음이 만든 맛이기에 손님들에게도 그 진심이 그대로 전해지는 듯합니다. '정순함박'의 따뜻한 온기가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쿠팡이츠가 든든한 파트너로서 늘 함께하겠습니다.

['쿠팡이츠 사장님 스토리' 모아보기](#)

['쿠팡이츠' 소식 모아보기](#)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